



인도네시아

AI대책에는 2억5천만 달러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 하순 2007년의 AI대책 예산안에 대해 전년 수준인 약 5천4백만 달러를 책정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2007년의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세입부족으로 약 4천6백만 달러로 감액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AI에 대한 정세로 보아 국제사회나 원조기관 등으로부터의 비판이 일 것을 배려한 결과, 전년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I를 박멸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간 약 2억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 중 5천만 달러 정도의 부담능력밖에 없다며 자금 및 기술면의 국제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세계은행은 9월 17일, 1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뜻을 발표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동시에 AI가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피해총액이 최고 2조 달러, 사망률을 1%로 가정하면 7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피해예상을 전했다.(AW)

중 국

2005-2006 중국 축산시장 평가와 전망

상세한 산업분석을 제공하는 시장조사기관인 Research and Markets이 2005~2006 중국축산시장 평가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금육과 계란시장을 포함한 동물농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했으며 생산, 소비, 수출·입 가격, 소규모·대규모 산업환경 등 산업전반의 영역에서 다양한 가축생산의 경향들을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의 3·4 파트는 생산, 수출, 소비, 시장가격, 주요기업분석, 지자체 정책, 중요사안에 따른 영향 등의 의견들을 포함한 2005~2006년 가금육과 계란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자세한 정보는 Research and Markets 웹사이트 www.researchandmarket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WP)

일본

인정농업자, 채란계호수의 38.3%, 브로일러는 30.5%

농림수산성은 농업 종사자의 육성 확보를 위해 인정농업자제도를 설정하고 각종 시책의 집중화 중점화를 진행하고 있다. 06년 4월 시점의 인정농업자수는 채란계는 전년을 80호 상회한 1,382호로 06년 2월 1일 현재의 전 사육호수의 38.3%, 브로일러는 41호 상회한 792호로 30.5%를 차지했다. 인정농업자의 사육수수는 채란계가 9,945만 3,352수로 06년 2월 1일 현재의 전 사육수수의 56.2%, 브로일러가 3,6367,392수로 35.2%를 차지했다. (鶏鳴新聞)

사우디아라비아

양계농가 수입 급증에 울분

수입양계산물이 국내시장에 넘쳐나고 있어 국내의 양계농가들은 생존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양계생산자들을 위한 사우디 단체는 산자부장관에게 압박한 붕괴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중단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단체장 압둘라 바카르 퀘디는 엄청난 손실로부터 양계산업과 생산자의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Dh 300억(미화 800억달러 이상)이상의 국내 투자가 수입산물로 인해 이대로 방치된다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끊임없는 수입가금산물의 유입은 산업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 결과 다양한 계층의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WP)

영국

영국 청년, 물 없이 계란 삶는 기계발명

‘간편하게 계란 삶는 방법’을 생각하던 영국의 한 청년이 물 한방울 없이 계란을 삶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 화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인터넷판이 소개한 화제의 주인공은 영국 치프햄에 사는 사이먼 라임스(23)라는 이름의 청년. 본머스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을 공부한 그는 “간편하게 계란을 삶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전구를 이용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라임스가 ‘BEM(Bulbed Egg Maker)’ 이라고 이름붙인 이 기계를 만들기까지 실험에 사용한 계란만 무려 600개. 그는 “처음에 테이블 램프 밑에 계란을 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완벽하게 삶아지기까지 30분이나 걸렸다”며 “계란 삶는 일이 지긋지긋했지만 결국 완벽한 삶은계란을 만들어내는 이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가 ‘물’ 대신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열’을 이용 기계 안에 장착된 500와트짜리 할로겐 전구 4개가 계란에 직접 열을 가한다는 원리다. 6분이면 토스트와 함께 먹기에 딱 좋은 삶은계란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에 따라 삶아지는 정도 역시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이 발명품을 상품화 해 줄 업체를 찾고 있다는 그는 “내가 만든 기계가 토스터기처럼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방기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YTN)

